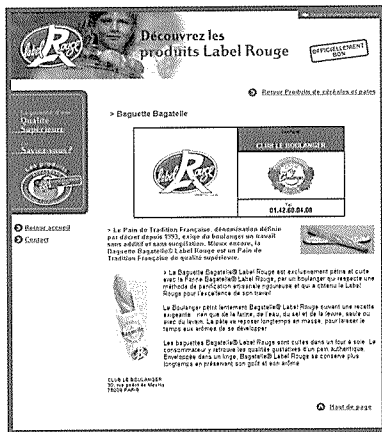


담당_정술이

바게트의 자존심과 품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

레드라벨(Label Rouge) 바게트



지난 12월 7일 프랑스 소비청은 최고 품질의 레드라벨을 단 바게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라벨은 프랑스 농림부 통제아래 바게트를 비롯해 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에 붙여지는데 제과제빵 분야는 제빵사 클럽에서 상업적인 빵장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기획했

다. 2002년에 '바가텔'이라는 이름으로 레드라벨이 도입되면서 첫해 열 달 동안 1천2백만 개가 판매된 데 이어 2003년에는 3천4백만 개를 판매해 3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프랑스에서 제과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3만~3만5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빵사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240명 가운데 103명만이 '바가텔'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 품질을 검증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빵의 맛과 질을 보증하기 위한 생각에서 시작된 레드라벨은 두 가지 사실을 보증한다. 위생적인 시설에서 질 좋은 전통 프랑스식 바게트를 만든다는 것, 레드라벨 밀가루와 물, 소금, 효모만을 배합해 오랜 시간 반죽해 만든다는 것이다. 바가텔 관계자는 "레드라벨을 부착한 바게트가 최고의 바게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레드라벨은 소비자들에게 믿고 살 수 있는 보증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 15회 미식(美食) 주간 거리로 나선 프랑스 요리사들

'미식의 나라' 프랑스의 요리사들이 제 15회 미식(美食) 주관을 맞아 주방을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지난 2004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미식주간 관련 행사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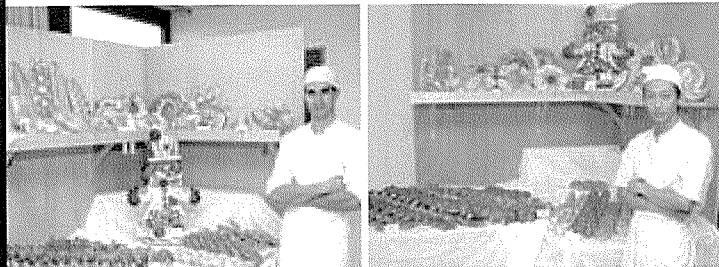
이 행사는 1990년에 설탕연구센터가 미식의 날로 지정한 10월 15일에 프랑스 전역의 요리사, 제과제빵사 350여 명이 참가해 어린이들을 위한 맛 교실을 연 것이 시초가 되어 1992년부터 '미식 주간'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기존의 맛 교실은 물론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위한 맛 교실, 고급 레스토랑 요리사들이 시민들을 만나는 등 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요리법을 직접 설명해주고 미식 주간 메뉴를 선보여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지난 2002년에는 350여 레스토랑이, 2003년에는 400여 개의 레스토랑이 참가했을 만큼 해마다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Prism

유럽 주니어 제과 경연대회

프랑스 대표 선수 '시릴 모리소' '수티 웅' 1,2위 차지



1등 Cyrille Morisseau

2등 Su-Ty Ung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프랑스 루앙의 INBP에서 열린 제 34회 국제주니어제과경진대회에서 프랑스 대표 시릴 모리소(Cyrille Morisseau)와 수티 웅(Su-Ty Ung)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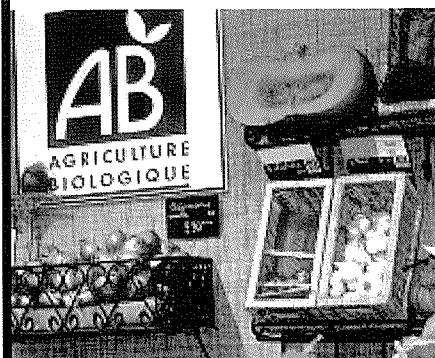
유럽의 8개 국을 대표한 16명의 어린 선수들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인 이 대회는 프랑스 제과제빵연합이 주최하고 국제제빵연맹의 후원으로 INBP(프랑스 국립제과 학교) 3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려 더욱 뜻깊었다. 16명의 출전 선수들은 자국의 예선전을 걸쳐 선발됐고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진행됐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곳곳에 통역원들을 배치해 선수들의 편의를 도왔다.

프랑스 대표 시릴 모리소와 수티 웅은 높은 수준의 작품을 선보여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대표가 그 뒤를 이었다.

심사위원장 예메 비제(Aime Bize)는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준비 시간과 과정, 출전 선수의 끈기와 의지, 유럽의 높은 수준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의 질" 등을 강조하면서 "각 선수는 자기 나라에서 일에 대한 진정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농업 생산 위축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제품 소비 증가



프랑스 소비자건강연합(CSA)에 따르면 2004년 프랑스인의 44%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바이오 제품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제품의 소비는 프랑스 농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2003년의 37%에 비해서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고소비계층의 수요 맞물려 바이오

제품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식품 분야로 꼽히고 있다고 바이오 에이전시의 출간물에서 밝히고 있다.

과일, 채소, 달걀, 빵, 유제품, 가공류 등 다양한 제품이 유기농 제품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약 1/4은 새로운 고객층이라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의 84%가 유기농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앞으로 프랑스 유기농 시장 전망이 더욱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_박소희

현재 소비자들의 새로운 경향

특별한 나만을 위한 서비스 추구

'손님'이라는 단어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한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한 리서치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특별한 상품', '전용 코디네이터'를 원하는 30~50대 주부, 여사무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만족감을 위한 소비를 하고 싶다는 소비자 심리를 부추기는 기업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 등에서는 고객의 상품선택을 돕기 위해 따로 스태프를 두고 옷, 구두 등을 판매하는 매장 손님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코디네이트 해준다. '당신은 특별합니다'라고 느껴지는 서비스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등 요인이다. 상품 뿐만 아니라 사는 방법까지 독특함을 원하는 소비자도 부쩍 늘고 있다. 사는 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가 반영된 까닭이다.

가와구치 창업 점포 새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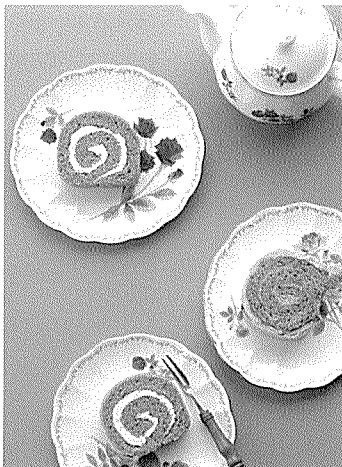
데이지 리뉴얼 오픈

데이지(대표 倉田博和)는 지난 9월 29일 창업점포인 사이타마현 가와구찌시 소재 가와구찌점을 리뉴얼 오픈했다. 구라다 사장의 부친인 구라다 회장이 28년 전 개업한 이래 지역 주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가와구찌점은 리뉴얼 오픈한 뒤 3일 동안 약 4천 명의 손님이 찾아와 대성황을 이뤘다. 총투자액은 약 3천 만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노란색 외관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내부를 새단장한 가와구찌점은 매장 10평, 공장 12평의 규모로 2층은 휴게실, 편의실과 주거 공간으로 사용된다. 기계설비는 전부 최신 기계를 완비했다.

주소 埼玉縣川口市末廣3-1-7 전화번호 048-223-8201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전국 150종류 제품 전시

롤 케이크 전람회 개최

동경·이케부쿠로 '나무코·난자타운'에서 오는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150종류 이상의 롤 케이크를 모아 전시하는 '롤 케이크 전람회'를 개최한다.

'롤 케이크 전시회' 테마는 유럽과자로 전해지는 1955년대부터 일본 서민 간식으로 즐겨먹던 '스위스 롤 케이크'를 선보인다. 저명한 파티시에, 오랜 전통을 가진 점포, 유명한 점포에서 만든 수량한정품을 시작으로 지역 한정판매로 생산하는 롤 케이크, 세계 유명 롤 케이크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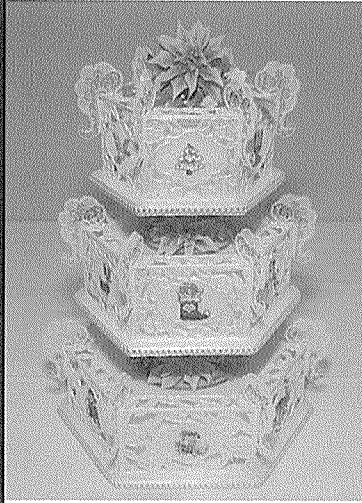
나가자키현 '혼다양과자점'에서 46년 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혼다 스위스 롤', 교토 '마자이구우스'의 마차 롤에 검은 콩과 밤을 사용한 'ほんなり京の마차 롤' 등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제품을 마카로니 광장에 마련된 '롤 케이크 마켓'에서 맛볼 수 있다.

주소 東京都豊島区東池袋3-1-3 선샤인시티·월드 인포트 마트 3층 전화번호 03-5950-0765

Prism

제5회 슈거크래프트 그랑프리 2004 일본대회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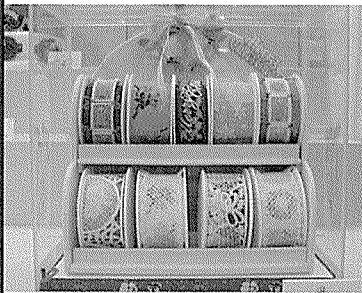
일본 최대규모, 200여 점 출품



그랑프리·롯데 飛榊(대만) / 애니버서리 부문



심사원특별상 畑中眞三子 / 웨딩케이크 부문



슈거크래프트 대회는 일본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슈거크래프트 그랑프리 2004년 일본대회'가 지난 8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동경 신주쿠 소재 메이지기념관에서 열려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 대만, 스리랑카, 영국 등 해외 출품작을 포함해 2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服部幸應(하토리학원이사장)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그랑프리를 수상한 롯데 飛榊(대만) 등 입상자가 결정됐다. 대회 기간 동안 슈거크래프트에 관련한 갖가지 데몬스트레이션, 워크샵 등이 이어지고 각종 전시 부스가 다양하게 선보여 많은 관람객이 전시회장을 찾았다.